

Anthony J. Tomasino 박사, 예수 이전의 유대교, 세션 10, 유대 종파

© 2024 Tony Tomasino 및 Ted Hildebrandt

예수님 이전에 유대교를 가르쳤던 안토니 토마시노 박사(Dr. Anthony Tomasino)입니다. 10번째 세션, 유대 종파

입니다. 요세푸스의 고대사(Antiquities)에서 요한 히르카누스(John Hyrcanus)의 통치에 대한 설명에서 그는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중단하고 그가 유대인의 세 가지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는 철학이라는 단어를 매우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요세푸스는 당시 로마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던 세 가지 주요 철학으로 간주되었던 유대교와 로마 사회 사이의 어떤 연관성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서기 1세기에 크게 부활한 스토아주의, 에피쿠로스주의, 견유주의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이러한 유대 종파 또는 유대인 철학을 다시 부르면서 설명하면서 그가 분명히 언급한 문제와 연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그의 청중들에게 흥미로울 것이고 실제로 그 시대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종종 논쟁이 되었던 문제였지만 아마도 그 시대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세푸스는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이러한 종파들에 대한 정보의 주요 원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유대인 그룹에 대한 그의 설명에 대해 최소한 어느 정도 정확할 수 있는 한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그의 시대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 기록을 요한 히르카누스 시대에 썼다는 사실은 아마도 신약 시대에 매우 두드러졌던 이러한 분열 중 일부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였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종파나 분열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의 연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유대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협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타협할 수 없는 것에는 유일신교 사상이 포함됩니다. 수많은 신을 믿으면서 유대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나중에 랍비 유대교에서는 하늘에 있는 두 권세와 이 모든 종류의 놀라운 일들에 관한 전체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의 시기에도 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매우 분명하게 알았고, 물론 그들은 매일 아침 쉼마를 낭송하면서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스라엘아 쉼마여, 엘로헤이누여, 에갓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로다. 따라서 유일신교는 유대교의 기본 사실로 간주되며, 이를 협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또 다른 하나는 할례에 대한 개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할례 언약의 개념을 폐기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참된 유대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와 다른 소식통을 통해 일부 파벌, 심지어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할례 개념을 영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카베오 시대에 할례를 취소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 읽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여겼을지라도,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유대인으로 여겼을지는 의문이다. 아시다시피, 이런 종류의 일들, 선을 굽는 것 등은 약간 끈적거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도 대부분의 기독교계가 고려하지 않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 그래서 포경수술에 관한 이 모든 것이 다소 간지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협상할 수 없는 또 다른 것은 모세의 율법이 될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토라를 구속력 있는 성서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세의 율법 없이는 유대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달랐지만, 모세의 율법이 유대 민족에게 권위가 있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중요한 논쟁점이 됩니다.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제1의 성전이자 동물제사를 드리는 곳이며 누군가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곳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 이제 사해 두루마리와 분명히 다른 그룹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제직의 부도덕함과 심지어 우리에게 단순한 일조차도 그들에게는 아니지만 잘못된 날에 축제를 한다거나 그런 종류의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격을 박탈한다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던 활동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자 하나님의 일이 행해지는 곳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나중에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어느 정도 분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독교는 존재한 지 수십 년 동안 유대 종파로 여겨졌으나, 서기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성전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에게 기독교인은 유대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우리는 유대교의 넓은 우산 내에서 다양한 그룹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협상할 수 없는 기본 사항이 있지만 여전히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유대인 종파주의의 일부 근원은 많은 다양성을 용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대해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엄청난 일처럼 보입니다. 내 말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신이 같은 종교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거래를 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거나 현재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선한 유대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거기에 또 다른 선을 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그 전 세기에도, 몇 세기 후에도 그것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손을 잘못 씻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죽은 자의 부활 같은 것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마찰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뭉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말라기서에서 이 과정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들으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기억의 책이 그 앞에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말라기서, 제가 이전에 말라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은 이 전체 기간을 설정하는 데 다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근인가 뭐였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착하다고 생각하니?" 당신이 제공하는 것을 보십시오. 정말 꼼꼼해요. 목사님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부도덕한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일조를 보십시오. 당신은 그렇지 않고, 마땅히 십일조를 바치지도 않습니다.

등등. 그래서 마침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 유대인 집단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 이제부터 우리는 이걸 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 중 일부만 모여서 이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종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간 동안 이곳 유대인들 사이의 분열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상상하고 싶은 방법 중 하나는 일련의 필터를 사용하여 광선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이 거대하고 커다란 광선, 크고 넓은 광선을 얻었고, 작은 큰 구멍이 있는 판자에 그것을 비쳤습니다. 이제 훨씬 더 작은 빛의 광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진행되면서 일종의 퍼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위에 또 다른 판자를 올려놓으면 다시 훨씬 더 작은 빛의 광선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광선은 퍼질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아마도 매우 다양한 견해와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等等. 다른 사람을 죽이러 가지 마세요. 돼지 등을 먹으러 가지 마세요.

그래서 말하자면 빔이 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말한 개혁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제부터 너희는 언덕 꼭대기에서 예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장소는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곳은 당신이 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약 100년, 200년 동안 우리가 이미 보아왔듯이 그들은 여전히 그 아이디어의 파급효과를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심지어 언젠가 나중이라도 이러한 독단적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때때로 권위 있는 사람들과 권위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가올 세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결정한 랍비들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정통의 경계가 무엇인지 다시 그러보기 위해 다양한 작은 필터 등이 설정되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우리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특정 측면을 재확인하거나 재고하게 만든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전 파괴는 유대인의 사고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면서 어떤 종류의 동물 제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재협상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 하나,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좀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제사 등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장소를 계속 순례하고 그곳에서 야외에서 희생 제물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마도 로마에 대한 두 번째 반란인 바르 코크바 (Bar Kokhba) 반란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바르 코크바 (Bar Kokhba) 반란 이후 예루살렘은 로마 도시로 바뀌었고 유대인들은 죽음의 고통을 안고 도시의 특정 반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그러한 의식을 계속하고 지속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이러한 희생은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전 파괴와 같은 사건은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문제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전체 사업에서 제외된 종파 중 하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에 거주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도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마리아

도시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파괴되고 그리스인들이 다시 거주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중간기가 끝날 무렵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로 알려진 지역 전체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지역과 거기에 여러 도시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우리의 생각을 조금 정리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종종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 북쪽에 있는 작은 무리의 사람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매우 많았으며,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에는 아마도 그 특정 지역의 유대 사람들만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지중해 지역 전체를 살펴보면 더 많은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론에도 유대인이 있었고, 페르시아에도 유대인이 있었고, 그리스에도 유대인이 있었고, 이집트에도 유대인이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그리심산 주변에 꽤 잘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그리심산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엄격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은 실제로 모세의 율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한 토라를 갖고 있으며 거의 동일합니다. 이는 성경의 정경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아내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국 같은 성경을 갖게 됩니까? 하지만 예,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고 토라의 책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심산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반면, 물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시온 산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께 말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친절하고 작은 대답으로 다시 오셔서 이 산이나 저 산이 아무런 차이도 만들지 못할 날이 올 것임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것이 이 산이거나 저 산이어야 한다고

정말로, 정말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산인 그리심산에 그들만의 이야기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솔로몬 왕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모두 배교했으며, 그들만이 주님을 참으로 숭배하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잘못 예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아직도 주변에 있습니다. 아직 주변에 몇 가지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토라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두 명의 사마리아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에서 그들은 심지어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는 관념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외된 종파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교의 정통 종파들, 글썬요, 우리는 그들 중 다수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다른 그룹들에 대한 멋진 작은 설명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요세푸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불일치가 있었지만 협상할 수 없는 사항에 동의하는 한 괜찮습니다.

Hasmoneans 대 Hasidim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나 다른 것에 대한 해석에 대해 그다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얼마나, 얼마나 엄격하게 따라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며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하시딤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Hasmoneans는 안식일에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하는 반면, 우리는 반격하고 있으며 안식일에 그들이 감히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하게 반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것이 거룩하게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그 시대의 네 가지 유대 종파를 묘사합니다. 이제 그가 말하는 방식은 유대인들 사이에 세 개의 종파가 있었고 내가 이미 말했듯이 여기서 그는 이 멋지고 작은 도식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로마인들과 이러한 연결을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 견유학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인의 세 종파입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 사이에는 다른 많은 철학이 있었지만 그것은 세 가지 정의 그룹과 비슷했습니다. 또한 회의론과 다른 일들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플라톤주의도 있었고,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그 당시 로마인들 사이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세푸스가 글을 쓰고 있던 1세기의 스토아주의, 에피쿠로스주의, 견유주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주요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 세 개의 종파가 있다고 말하고 나서 철학을 계속합니다. 나는 그것이 그의 철학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 네 번째 철학도 있습니다. 예,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네 가지 철학을 갖고 있으며 분명히 이런 종류의 도식적 패턴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유대인 중에는 더 많은 그룹이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며, 미슈나에는 이 시대의 유대인 중에 다른 그룹이 더 많이 있으며 탈무드에는 더 많은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양성은 엄청나게 많았고, 제가 협상할 수 없는 사항을 언급한 것 외에는 유대인이 되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시점에서 실제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요세푸스가 언급한 첫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꽤 흥미로운 그룹입니다.

성 바울은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밝혔으며,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지점에서 그들과 다리를 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의 다른 종파들과 머리를 맞대셨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우선,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분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파라스(paras)에서 유래되었으며 이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파라스(paras)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는 결국 여기에서 끝나는 ee가 우리가 젠틸릭 엔딩이라고 부르는 것이므로 등 의 존재감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등등 부서의. 파라스는 여기서 명사 형태가 오는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파라스(paras) 형태는 때때로 아람어 수동형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분리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분리를 만드는 사람들, 분열을 만드는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십일조를 아주 조심스럽게 나누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박하와 쿠민과 딜을 십일조로 바치고, 그들이 사물을 나누는 등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 선과 악을 끊임없이 구별하는 사람들.

내 말은, 그게 여기서 정말 큰 일이라는 거죠. 무엇이 사람을 순수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사람을 불순하게 만드는가? 어쩌면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종류의 구분일 것입니다. 반면에 매우 중요한 사해 두루마리 중 하나에는 그룹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가 있는데, 그들은 동일한 동사 paras를 사용하여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과 분리된 이유라고 말합니다. . 이제 그 두루마리를 쓴 집단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동일한 용어가 이미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던 당시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전체 질문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친절하고 자유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자유주의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방식의 자유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본문의 문자적 의미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문을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고 실제로 의무가 있다고 믿었으며, 미쉬나와 이후의 탈무드에는 성경 본문에서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규칙 목록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규칙 중 일부에는 공통 주제 찾기 등과 같이 우리가 꽤 괜찮은 종류의 아이디어와 절차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문자에는 숫자 값도 있고 로마 숫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어의 글자들을 가져다가 더하고 숫자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숫자를 취하여 성경의 한 동사나 절, 또는 성경의 한 단어를 비슷한 가치를 지닌 다른 단어에 연결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하여 해석적 연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텍스트에 비추어 한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 일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다른 많은 규칙과 절차를 통해 우리는 일종의 사소한 성경 구절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때때로 매우 심오하고 주요한 진리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처럼 이야기를 통해 성경의 내용을 확장하고 의미를 끌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이 해석의 폭을 넓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후대 랍비들 중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랍비들 중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후손으로 여기고 그들도 자기들을 바리새인의 후손으로 여겼으나 랍비들 중에서는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느니라 멀리까지 당신은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논쟁을 벌이고 결국에는 때때로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작은 예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재앙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들은 때때로 이런 것들을 걷어차고 싶어합니다. 히브리어로 개구리라는 단어는 집합명사일 수 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 또는 여러 마리의 개구리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 중 한 사람은 이집트의 개구리가 하나의 거대한 개구리였다고 제안했습니다. 프로그질라! 그러자 다른 랍비가 말했습니다. “닥쳐요. 너무 멀다! 너무 멀다! 아니요.

예,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참여하게 될 종류의 일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그들이 특정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러한 구전 전통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특정 법률을 해석하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들은 성경에서 나와서 다양한 해석 방법을 사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제시합니다.

다시 한 번, 나는 랍비들과 랍비 전통의 모음집인 미슈나를 계속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슷한 종류의 사고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법 주위에 울타리를 세우는 현자들. 즉, 사람들이 법을 어길 일조차 없도록 전통의 울타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이란 무엇을 구성하는가? 글썄요, 만약 서기관이 안식일에 글을 쓴다면 그것은 그가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은 글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귀 뒤에 깃펜을 꽂은 채 돌아다닌다면 어떨까요? 그는 글을 쓰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없었나요? 왜냐면, 당신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서기관이라면 안식일에 귀 뒤에 깃펜을 꽂고 돌아다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전통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각의 율법과 계명 주위에 보호 울타리를 쌓고 있는데, 무엇이 너무 지나친 것입니까? 안식일에 걷기에는 얼마나 먼가요? 글썄, 우리가 50피트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에게 25피트는 걸을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 이것이 랍비들이 관여한 종류의 일들입니다.

그들은 법률, 해석 방법, 구속력 있는 사상을 중심으로 구축한 구전 전통을 갖고 있었고, 이것들이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의 등에 부담을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약성서에서 우리는 랍비들이 사람들의 등에

짐을 지우는 것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 자신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율법, 이러한 것 중 일부는 실제로 우리에게 거의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볼 때. 그러나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의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요세푸스가 유대 종파에 대해 논의하면서 초점을 맞춘 것 중 하나는 자유 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큰 문제였습니다.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학파 등은 자유 의지라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실제로 자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 어떤 유대 문헌에서도 논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 말은, 그들은 때때로 질문에 대한 일종의 힌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자유 의지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 질문에 대해 전혀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세푸스는 이것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글썄, 그는 삽입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청중이 유대인이 그리스와 로마의 위대한 민족과 얼마나 유사한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들을 같은 종류의 관점에서 보고 싶어하고, 그들을 철학자 종족으로 묘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가 자유 의지에 대해 이러한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그의 논의에서 전체 스펙트럼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 자유 의지를 믿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이 예견된다고 믿지만, 모든 사람이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그 시대의 감리교인들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평키한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영혼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분명히 영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천사를 믿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성경을 읽었고, 아마도 같은 성경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은 천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다른 유대인 그룹이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한 모세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토라의 다른 책들 곳곳에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다른 종파보다 영을 더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가 말하는 것은 영적 존재의 개입, 즉 영들이 와서 인간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산헤드린 앞에 끌려갔을 때 그는 그 무리의 구성을 보고 그들 중 일부는 바리새인이고 일부는 사두개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들아,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재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두개인들은 '아, 이 사람을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는 단지 말썽꾸러기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영이 그에게 말을 걸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영이 개입할 가능성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아마도 그 시대의 영들이 하는 일에 대해 좀 더 회의적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죽은 자의 부활은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카베오 1서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어떤 개념도 분명히 없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마카베오서 2서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은 모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자기 길로 가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고 의로운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 사상은 바리새인들도 소중히 여겼던 사상이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이것은 여러분이 취해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나는 그것을 조금 한 알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더 말하고 싶습니다. 상대적인 것.

그다지 인기가 없었던 사두개인들에 비해 인기가 있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바리새인들은 때때로 천박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또한 신약성서에서 바리새인들이 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는데, 요세푸스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더 가난하고 평균적인 조와 더 동질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스들 사이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나는 부를 사랑하지만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부유한 바리새인들도 몇몇 있었고, 예수께서 많은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몇 번 언급한 또 하나의 요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미슈나와 탈무드에서 찾을 수 있는 랍비 유대교와 바리새인의 종교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나는 랍비들이 자신들을 바리새인의 상속자로 생각하기 전에, 그리고 미슈나와 다른 글의 작은 시나리오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또는 다른 종파 사이에 종종 갈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일반적으로 그 만남의 주인공. 일부 학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고, 아, 그건 너무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어쩌면 너무 단순할 수도 있지만 맞는 것 같으니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리새인들이 결국 랍비 유대교의 조상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유대교, 특히 바리새인은 다양한 위기를 겪으면서 예를 들어 성전 파괴와 같은 위기를 겪게 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희생의 역할과 종교에서의 희생의 위치에 대한 그들의 이해 중 일부를 입장을 취하고 재구성합니다. 그럼 사두개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다시 한 번 이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은 거의 확실하게 사독(Zadok)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사독이라는 단어는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로운 민족으로 여겼다는 뜻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사두개파가 스스로를 사독파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독은 누구입니까? 사독은 결국 하스몬 왕조에 의해 대체된 대제사장 계열의 조상이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두개파는 하스몬파가 대제사장직을 맡는 것에 반대하는 항의 운동으로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름만 보아도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역사적으로, 요세푸스에 따르면, 적어도 알렉산더 살로메 시대까지는 사두개파가 하스몬파의 지지자였던 것 같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종류의 공식을 생각해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보수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본문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고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텍스트의 확장이나 다양한 뉘앙스 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매우 명확하고 가능한 한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기초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서만을 완전한 권위 있는 성경으로 여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개념을 거부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해 온 또 다른 요점 중 하나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에 있어요.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날에 당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입니다. 에스겔서와 시편, 구약성서의 다른 부분에도 부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며 조금 변론하실 때에 이르시되 이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토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들의 불신을 반박하기 위해 성경의 특정 구절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는 다니엘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는 토라의 한 구절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을 권위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FF Bruce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흥미로운 관점이었고 나는 그런 사고 방식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들은 신의 개입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들은 또한 완전한 자유 의지를 믿습니다. 그들은 내가 말했듯이 여기에 어떤 종류의 신적 개입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의지에 어떤 종류의 예정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영혼의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상류층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에서 의를 행한 데 대한 상이 있음도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니라. 본질적으로 누군가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물질을 얻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에게 상류층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다는 표시입니다.

요세푸스는 그들이 대중에게 인기가 없다고 말하고 심지어 서로에 대해서도 천박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 동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종류의 연합 중 하나는 특히 예수님 시대에 그들을 성전 및 성전의 지도자들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제사장 전체가 어떤 종교에 속해 있는지 실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두개인들인 대제사장직과 관련된 다른 가족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으며,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들 중 적어도 한 명은 사두개인이 아닙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거의 확실하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장악했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대제사장인 사두개인과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외에도, 또 다른 광범위한 제사장들도 있는데,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있는지 아니면 위의 사람들이 없는지에 따라 종교적 지향이 상당히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꽤 혼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직은 한동안 사두개인과 대체로 제휴하고 연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마도 많은 대제사장들이 스스로를 사두개파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아마도 자신들이 어떤 종파에도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좋아요. 요세푸스가 언급한 또 다른 그룹은 에세네파인데, 에세네파는 신약성경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서중간 본문에서 결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Philo)에 의해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설명과 필로의 설명은 약간씩 다르며, 둘 사이에 몇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Josephus와 Philo가 모두 Essenes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솔직히 그들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인과 그리스인은 이상한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게다가, 에세네파에 대한 요세푸스의 설명에서 그가 에세네파와 견유학파 사이에 몇 가지 유사점, 일부 유사점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유대인들이 우리와 똑같다는 사실을 로마인들에게 확신시키려고 다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세네파, 우리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헤세드(hesed) 또는 헤세딤(hesedim)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었을 것이다.

더 이상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이론이었습니다. 좋아요.

히브리어로 만들거나 행한다는 뜻의 아사(asah) 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언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더 가능한 파생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얻었고, Essenes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Josephus는 그것을 사용하고 Philo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글썄, 그것은 신약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세푸스와 필로에 따르면 그들은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안락과 쾌락을 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엄격한 규율의 삶을 살았습니다. Josephus와 Philo는 둘 다 금욕했다고 말하지만 Josephus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그러나 금욕적이지 않은 다른 Essenes 그룹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반적으로 금욕주의자입니다. 요세푸스의 에세네파와 필로의 에세네파 사이의 또 다른 흥미로운 차이점은 필로가 그들 중에는 무기를 만들거나 파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평화주의자라고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적인 또 다른 가능성은, 음, 그 당시 무기 판매는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큰 사업이어서 돈과 재산 등을 피하는 사람들은 무기를 사거나 팔거나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단순한 생활 방식을 상징합니다. 이제 요세푸스는 에세네파가 평화주의자라는 사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실제로 로마에 대항한 반란의 지도자 중 한 명이 에세네파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세푸스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이 평화주의자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필로는 아마도 그들이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노예를 소유하지 않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다른 동포들에 비해 매우 이상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유 의지라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모든 것은 에세네파에 따라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필로와 요세푸스가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요세푸스는 그리스 철학과 연결고리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점성술을 믿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에세네파가 예언의 신탁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했으며 그들의 예측에서 거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점성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필로는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매우 금욕적이고 엄격한 유대 종파인 사람들도 이런 종류의 평키하고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허브도 있어요.

그들은 허브를 좋아해요. 그래서 에세네파는 구시대의 신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징조를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래를 말할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예측에 결코 오류가 없었습니다.

요세푸스가 사후세계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묘사하는 방식은 그들이 영적인 사후세계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엔 그리스인들의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행복 속에 있는 섬으로 가서 큰 혜택과 하늘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범위를 다뤘습니다. 그렇죠? 자유 의지가 없고 완전한 예정론을 믿는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예정이 없고 모든 것은 자유 의지라고 믿는 사두개파가 있고, 중도를 택하여 어떤 것은 예정되어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 의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부활을 믿었지만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그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일반적으로 물질은 저급하고 악하고 부패했으며 오직 정신만이 선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육체에서 풀려난 후에 육체로 돌아가는 육체적 부활에 대한 생각은 그리스인과 로마인에게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육체의 부활에 대한 개념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예,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이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마지못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이 육신을 떠나 축복받은 영역으로 간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세 종파로 여기의 모든 기반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요세푸스는 덧붙입니다. 아, 그런데 이 네 번째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학자들, 특히 약간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오용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약간의 지식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이를 네 번째 철학이라고 부른다. Zealot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Great Revolt의 세 가지 주요 세력 중 하나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대반란 이전에 다른 성급한 사람들 중 일부가 열심당처럼 행동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시점에서 요세푸스는 그들을 위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를 제4의 철학이라고 부른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브루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뒷방에 가두어 두는 그런 사람과 비슷합니다. 아시다시피, 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면 이곳에 있는 그들의 존재를 활용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썹꾸러기의 네 번째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적 견해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그가 어느 시점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의 또 다른 글에서 그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지만, 그의 고대 유물에서는 그들의

견해가 바리새인들의 견해와 거의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왕이라 부르지 않을 정도로 자유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을 갖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메시아 개념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전형적인 생각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세푸스에 따르면 열심당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거의 고귀한 일이라고 말하곤 하지만 동시에 정말 급진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집단은 로마에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나중에 열심당으로 이어지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질럿뿐만 아니라 반란에 연루된 다른 세력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그들의 발에 맡기고 싶어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은 사두개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반기를 들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은 바로 이 집단, 이 괴짜들, 말하자면 가문의 흑양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언급해야 할 또 다른 그룹은 사해 두루마리 종파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에 대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이 종파는 의의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언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기원전 150년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사해 두루마리 종파가 자신들의 글을 통해 예정론에 대한 믿음을 공유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세푸스가 에세네파에 귀속시킨 것과 매우 유사한 믿음, 즉 거의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두루마리에 따르면 그들은 또한 일종의 금욕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두루마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번에 해보아야겠습니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에세네파와 달랐습니다.

결혼 문제. 사해 두루마리의 주요 문헌 중 하나는 결혼 풍습,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누구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지, 좋은 아내를 찾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노예 제도.

다시, 필론은 에세네파가 노예를 소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해 두루마리 중 일부에는 노예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관해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동주의.

필로가 암시하는 것처럼 에세네파가 평화주의자였다면, 에세네파는 사해 두루마리 종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평화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다리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가 되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협력자들을 죽이고, 거기서부터 로마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그들의 회중의 우두머리가 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예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폭력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봉기를 예상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날짜도 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의 스승이 죽은 지 40년 후에 그들은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40년이 지나면 세상, 즉 그들과 같은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분리를 위한 이러한 기지들 중 일부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다른 유대인들과 분리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달력의 해석과 특정 축제를 기념하는 날짜입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것이며, 동료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향에 있어 너무 자유주의적이라고 느꼈던 다른 종류의 법적 관행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질문 중 하나, 이 시대 유대교의 큰 쟁점 중 하나가 정통 대 교정의 문제인데 교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교리의 불일치, 정통교리의 불일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불일치만큼 중요합니다.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동의하지 않고

당신과 나는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손을 잘못된 방법으로 씻는 것과 같은 문제에 관해서는 싸움.

나는 당신을 부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떨어져; 너희가 손을 잘못 씻었으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4QMMT.

4QMMT는 쿨란의 4, 쿨란의 K4, Q는 쿨란을 의미합니다.

Miqsat(미크삿)이라는 문구의 약어입니다. 마아세 하토라(Hatorah)는 법률의 일부 행위이거나 법률의 일부 문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4QMiqsat Ma'ase 하토라 (Hatorah)는 사해 종파가 반대하고 이탈하는 모든 이유를 달력에서 바로 시작하는 텍스트입니다. 이때가 여러분의 안식일이 있어야 하는 때이고 이때가 여러분의 축제가 시작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일어날.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본문은 다소 단편적이어서 전체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특히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나쁜 일, 예를 들어 부적절하게 손을 씻는 일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작은 예입니다. 그 당시의 전형적인 유대인 관습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으려면 모든 제사장이 손을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큰 물병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손 전체에 물을 부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진행됩니다.

글쎄요, 이 사해 두루마리 종파는 말했습니다. “그 물이 그 사람의 손에 닿으면 그 사람 손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바로 그 물통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당신은 모든 사람의 손에 더러운 물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 이런 것들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비듬을 일으키며, 우리는 너희들과 교제할 수 없다고 말하게 만들었다. 손을 제대로 씻지 않는군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미슈나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기록된 것인데, 그것은 거의 일종의 허수아비 논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슈나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영웅이고 사두개인들은 일종의 그들의 추종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것은 모두 실천의 문제이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슈나에는 바리새인이 오 사두개인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불리한 일이 있다고 말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당신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대신 그들은 우리가 당신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 사두개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바리새인이여, 우리가 당신을 원망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묘지를 흐르는 물이 깨끗하거나 이런 종류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에게 반대합니다.

당신은 부모님의 뼈로 인해 손이 부정해지고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미슈나에서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종류의 것들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든 없든, 자유 의지가 있든 없든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소한 실천 사항에 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요세푸스가 이 세 종파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유대인의 네 번째 종파를 던진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이전 시대의 모든 유대인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입니까? 절대적으로하지. 그리고 요세푸스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 중 약 6,000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6,000. 당신은 그것이 그것보다 몇 배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의 수는 대략 6,000명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나한테도 여자와 아이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이여, 그는 대략 5,000명 정도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에세네파가 약 4,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Zealots가 단지 작은 성급한 집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무엇이 될까요? 글썄요, 아마 14,000명에서 15,000명의 유대인일 겁니다.

당시 로마제국에는 유대인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글썄요, 전체 중동 지역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백만 명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파의 구성원은 매우 소수의 유대인을 구성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글쎄요, 특히 당시 정치계에서 눈에 띄지 않았던 다른 종파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방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유태인입니다. 안타깝지만요.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구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종파에 속한다고 해서 당신이 유대인으로 정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지도자로 여겨졌을 수도 있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모릅니다.

내 말은, 그것에 대해 뭔가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모두가 함께 지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깃털 달린 새들은 함께 모여서 같은 생각과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의 주된 문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신만의 작은 조류 연구 브랜드를 생각해 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결정한 다음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유대교를 가르쳤던 안토니 토마시노 박사(Dr. Anthony Tomasi)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유대 종파입니다.